

어린이 책꽂이



▲인도 베다 수학=전자계산기에 버금가는 속도로 '스피드 매스매틱스'라 불리며 전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도 베다수학 연산법, 그 방법과 원리를 알려준다. 인도대사관이 공인한 인도수학 입문서다. (노부스·8천900원)



▲우리는 평화를 배운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 개념이었지만, 은밀한 대리전과 국지전의 형태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평화는 요원하다. 평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개인들이 생활 속의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아이세울·1만1천원)



▲내 짝꿍은 사춘기=아이들의 일상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도 파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봉직 시인의 동시집.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소재와 표현, 첫사랑과 인터넷에 관한 연작시 등 재미있는 시와 그림이 가득하다. (청개구리·7천800원)



▲머리 좋아지는 과학놀이=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마당에 생물학이, 쌓고 부수는 장난감 블록에 물리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는 사물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200가지 과학놀이를 소개한다. (노브·1만1천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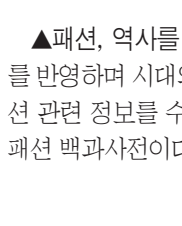
▲너 생각하니=베스트셀러 '짧은 동화 긴 생각'의 작가 이규경이 쓰고 그린 그림동화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쓰는 그림일기처럼 마음속을 들여다 보게 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과 생각의 깊이를 더해준다. (처음주니어·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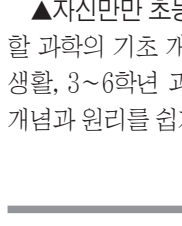
▲주식회사 6학년 2반=미래의 CEO를 꿈꾸는 아이들의 좌충우돌 주식회사 경영 이야기를 다룬 경제동화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경제와 관련된 기본 상식, 주식·펀드·저축 등 경제원리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고 있다. (다섯수레·1만원)



▲말쟁쟁이를 변화시킨 7명의 위인들=소심하고 책임감도 없는 열등생 예담이가 책을 통해 과거로 철학여행을 떠난다.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맥타가트, 이정암,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등 7명의 위인들을 직접 만나 새로운 아이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스콜라·9천원)



▲패션, 역사를 만나다=패션은 한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반영하며 시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다. 오랜 시간 패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온 정혜영씨가 쓰고 그린 어린이용 패션 백과사전이다. (창비·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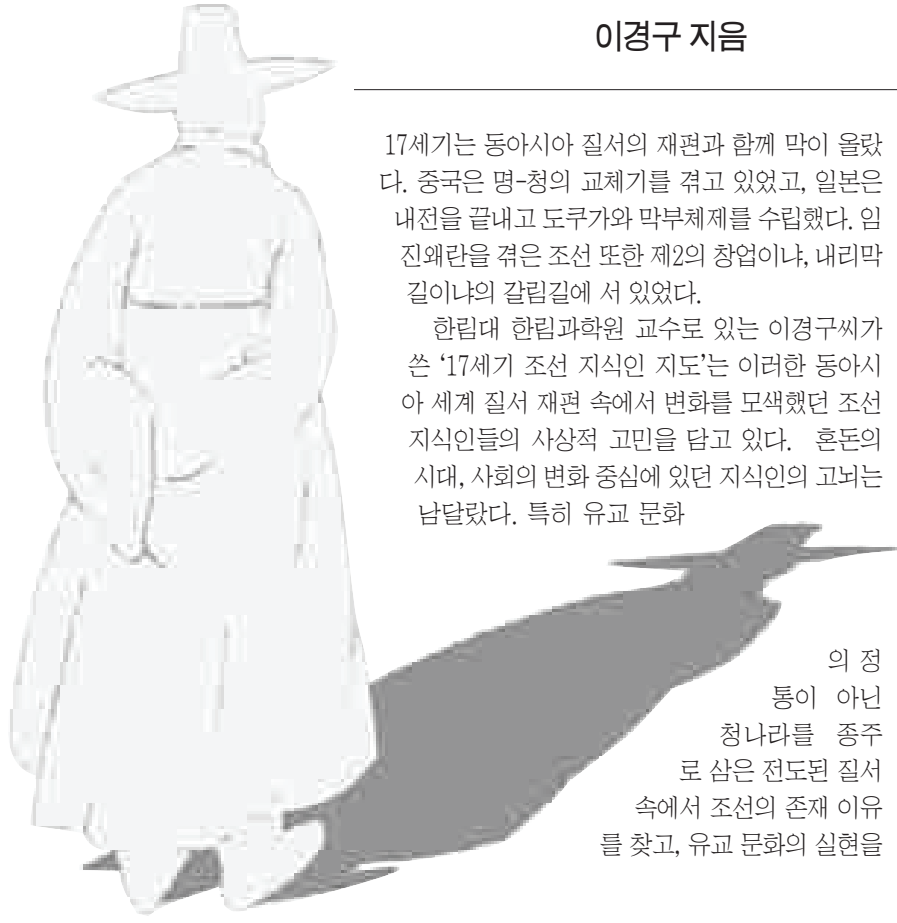


▲자신만만 초등과학=예비 초등학생 또는 초등 저학년이 알아야 할 과학의 기초 개념을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1~2학년 슬기로운 생활, 3~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뽑은 16가지 주제로 꾸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아이즐·9천500원)

위기와 변화, 고민하는 조선의 지식인들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이경구 지음



17세기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함께 막이 올랐다. 중국은 명-청의 교체기를 겪고 있었고, 일본은 내전을 끝내고 도쿠가와 막부체제를 수립했다.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 또한 제2의 창읍이나, 내리막 길이나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로 있는 이경구씨가 쓴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는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변화를 모색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적 고민을 담고 있다. 혼돈의 시대, 사회의 변화 중심에 있던 지식인의 고민은 날달랐다. 특히 유교 문화



의 정통이 아닌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삼은 전도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유교 문화의 실현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들은 국가 존립의 근거, 사회 재건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 사대부 개개인의 삶의 의미 등을 '학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를 넘어 '실천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라 보았다.

조선의 재건과 변화를 이끈 논쟁과 새로운 통찰의 중심에는 주희의 사상, 즉 주자학(朱子學)이 있었다.

그러나 주자학이 국가 재건의 이데올로기로서 확고 부동한 위치를 점하기까지는 수많은 사건과 논쟁을 거쳐야 했다. 주희의 사상을 어떻게 교육하고 해석하고 보편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사상의 어떤 점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그 점에서 17세기의 지식계는 나름의 계보와 흐름 속에서 독특함을 간직하고 있다. 저자는 16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학파와 서원이 지식인들의 담론의 원천이자 지적 결합을 배태하는 토양이었다고 본다.

"스승의 훈도와 독서, 강학은 교육의 과정이면서, 동학과 동지를 양성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었으며 그 점에서 학파는 정파의 모태가 되었다"고 최소한 정파와 긴밀한 관계였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정파 없이는 시대는 없었지만, 17세기에는 이념을 매개한 정

파 즉 '붕당'이 전성을 구가했고 학파의 수장이 행사하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다고"고 분석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그 계보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학파를 이끌었던 산림(山林)의 대표주자 김장생, 김집 부자, 안민(安民)을 중시한 관료인 김옥, 유·불·선의 통합을 꿈꾼 문학가인 장유, 주자의 의리관에 투철했던 송시열과 윤휴, 고대의 이상사회를 염원했던 유흥일, 새로운 정치, 사회 질서를 모색했던 남구만, 김창협 등 당대를 좌지우지했던 걸출한 인물들이 소개된다.

저자는 "이들의 삶의 궤적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학자이자, 문학자, 정치가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들 모두가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사회 질서 재건의 의무감' 속에서 고민했던 인물들이었다"고 설명한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과거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변화의 고민 한 가운데서 유의미한 편린을 찾는다면, 2~3세기를 펼쳐져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 질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현재, 분열된 논쟁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끌고, 각 사회적 기능을 변화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지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푸른역사·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각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어령의 춤추는...' 이어령 글·정성화 그림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어린이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 '이어령의 춤추는 생각'을 출간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유일한 어린이책인 "'생각학교' 시리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창조적인 생각법'을 신화와 역사, 인물, 예술, 과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초등학생 고학년 눈높이에 맞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재미있게 풀어냈다.

1권 '생각개구기'는 호기심과 관찰, 형상화, 추리, 고정관념 벗어나기, 상징, 실천 등 잠든 생각을 깨워주는 일곱 가지 생각 도구를 다뤘으며 2권 '생각을 달리는'은 관점 세우기, 균형 있게 생각하기, 다양성 인정하기 등 생각을 더 잘하게 해 줄 여덟 가지 생각원리를 설명한다.

이밖에 세상을 바꾼 발명과 발명 천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누가 맨 먼저 생각했을까', 우리말 속에 담긴 지혜를 살피는 '너 정말 우리말 아니?', 우리 고유의 문화와 생각을 만날 수 있는 '뜨자 날자 한국어' 등 5권이 먼저 나왔으며 내년 4월까지 10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푸른솔어린이·각권 9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쟁의 아픔' 겪은 두 자매

'한낮의 여자' 울리아 프랑크 지음



'한낮의 여자'는 독일출판사작상협회가 주는 '올해의 책'을 수상한 울리아 프랑크의 소설이다. '올해의 책'은 독일어권 문학의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부터 1950년까지의 독일 역사와 함께한다. 삶의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최악의 비극인 전쟁을 둘러싸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은 유대인 주인공 헬레네가 초등학생 아들 페터를 가져다

에 버려두고 사라지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다시 1914년 헬레네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언니 마르타와 우에 이상의 유대를 쌓았던 유년시절, 자유분방한 베를린에서 보냈던 아름다운 젊은 시절, 끔찍했던 유대인 박해의 경험에 차례로 펼쳐진다.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꿈을 찾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젊은 나이에 청소년, 보조간호사, 방송국 보조 연출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작가의 풍부한 삶의 경험이 소설에 고스란히 스며있다. (학고재·1만4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조선은 신화 속 이야기?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이종호 지음



고조선은 신화 속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리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는 생생한 역사일까? '조선 최대의 과학수사 X파일' 등의 책을 통해 역사 속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종호씨가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을 펴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초빙연구원인 그는 이 책을 통해 과학자의 눈으로 동이족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 측의 의도를 비판했다.

또 국내 역사학계 일부에서 실증사학을 이유로 고조선을 역사에서 아닌 신화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반면 중국은 고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북방에 대한 고대사 유물 발굴과 과학적 조사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동북공정이 단지 고구려 역사를 뺏아내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동이족 역사 전체를 중국 역사로 만들어서 고조선을 포함해 동북방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단숨에 자기를 역사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한다. (글로연·2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UMONING 365 (굿모닝365) featuring various health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onal distributors.

Table with financial data, including company names like ASSET KOREA and ESET KOREA, and various metrics such as revenue, profit, and market share.